

진안 주말시장 15일 개장

야시장, 먹거리 다채 무료 영화관람 가능

진안군은 마이산, 구봉산 등 주말 내방객의 전통시장 유치를 위한 '진안고원 주말시장'을 오는 15일 토요일에 개장한다.

주말시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년 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무료 영화관람이 가능한 야시장이 운영된다.

주말시장 개장 하루 전인 14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진안시장 주차장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운영된다.

진안시장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동과 정육, 생선, 민물고기, 의류 등을 판매하는 점포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말시장은 주로 중앙광장(비기립시설 내에서 운영된다).

주말시장에 방문하면 수삼, 더덕, 도라지, 표고버섯, 제철 농산물을 농가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으며, 60세 이



상 어르신들이 텃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고향할머니장터도 만날 볼 수 있다.

또한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진안 흑돼지를 구매하거나 셀프식당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중앙광장에는 부침개, 꼬치구이, 진빵, 홍삼모찌, 더덕 막걸리 등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벚꽃, 나비 벽화 앞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해 가족과 함께 진안고원 주말시장을 둘러볼 만하며, 시장 이용객은 90분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이항로 군수는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관광버스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관내 농산물 보유농가라면 누구나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주말시장 직거래 코너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산림조합, '빨강장터' 홍보

도전가요열전 특설무대서 지역특산물 홍보효과 기대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김종식) 지역조합이 조합원들과 지역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배가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장수오미지지역표시제52호를 등록하여 오미지농가의 수익증대와 장수오미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지역특산물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장수군산림조합은 지난 9월부터 장수의 관인인 장수0에 빨강장터를 개장하여 장수 인산물의 우수성과 조합원과 임산물 가공품과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장수특산품인 오미지 사과 임산물등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9월30일 오후 6시 장수0

열 빨강장터 티브로드 전주방송 제1회 도전가요열전 특설무대에서 개최하여 빨강장터를 홍보하는데 시간을 마련하여 장수군민 9명이 참여와 9명의 초대가수들이 무대를 선보였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천명 이상의 장수군민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로써 오미지, 사과, 한우, 토마토 등의 장수군특산물의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현장에서 새롭게 선보인 생오미지를 갈아서 만든 음료시음이 인기를 얻었다.

이로 인해 장수군특산물 및 산림조합 조합원가입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주민 및 조합원들은 올해 폭염등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해주는 장수군산림조합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 하면서 매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쇄도 하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주민보호·청소년 선도 최선 다할 터”

무주군 범죄예방 결의대회서 친목 다져

2016 무주군 범죄예방 결의대회가 지난 8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자율방범연합대(대장 구자원)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무주경찰서 최성규 서장을 비롯한 자율방범대원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비롯한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등 화합행사에 함께 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대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방범의 초석이 될 것, 범죄예방과 주민보호,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 학교폭력 추방에 앞장 설 것 등을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에서는 무풍면 자율방범대 최점동 대원과 적상면 자율방범대 신길숙 대원이 지역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무풍면 자율방범대 이내화 대원과 적상면 자율방범대 정동준 대원, 안성면 자율방범대 조승호 대원이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안성면 자율방범대 김재형 대원과 부남면 자율방범대 김광수 대원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주는 감사장을, 무풍면 자율방범대 김대영 대원과 구천동 자율방범대 김양수 대원, 적상면 자율방범대 김운중 대원과 안성면 자율방범대 이규홍 대원, 부남면 자율방범대 김영수 대원이 무주경찰서장이 주는 감사장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천동 자율방범대 김중국 대장과 김민주 대원, 적상면 자율방범대 정상우 대원이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장상을, 구천동 자율방범대 우문주 대원이 무주군 자율방범연합대 장상을 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6개 읍면 곳곳에서 마을 방범과 주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주고 계시는 무주군자율방범연합대원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무주가 편안하다”며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뛰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무주군자율방범연합대 구자원 대장은 “대원들 모두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가 10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다

진안군, 월례조회·마음치유 특강 실시

진안군은 지난 7일 10월 '월례조회 및 마음치유 특강'을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항로 군수는 훈시를 통해 “2016년 진안 흡삼축제 차질 없는 준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지행위 숙지와 청탁문화 근절, 올해 계획한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진안흡삼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나선 10만명 방문, 30여명의 경제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

자”고 당부했다.

월례조회 후에는 연화사 법화스님으로부터 ‘마음이 놀자’라는 주제로 마음치유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강연은 과중한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직원들에게 삶의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마음의 치유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공감토크 실시

관내 유·초·중·고교 운영위원장 대상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애)은 지난 6일 오전 10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2016년 학교운영위원장과 공감토크를 강당에서 실시했다.

1부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과의 소통방안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실태와 예방교육’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2부는 진안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진안교육지원청이 2016년 추진했던 실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히며 진안교육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됐다.

손동규 협의회장(장승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관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안교육발전을 위해 중

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애 교육장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공감토크가 각 학교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진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진안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만경강 생태계 우리가 지킨다

완주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추진

완주군이 우리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은 10일부터 만경강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유해 야생식물인 돼지풀, 가시박, 미국속부쟁이, 물참새피 등 환경부가 지정한 교란식물을 퇴치한다.

이번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교란식물이 만경강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군은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들여 만경강 일대를 대상

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생태전문가를 참여시켜 식별 및 제거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은 “2016년에 국립생태원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조사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군 전역에 걸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용진을 용꿈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지난 6일 김홍기 부군수, 박재완 도의원, 이일규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진읍사무소 3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주 용진 용꿈 작은도서관 개관

지역주민 독서공간·소통의 사랑방 역할 기대

완주군 용진을 주민들의 생활 속 휴식공간이자 소통을 통한 문화공간인 용꿈 작은도서관이 활짝 문을 열었다.

용꿈 작은도서관 개관식은 지난 6일 김홍기 부군수, 박재완 도의원, 이일규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진읍사무소 3층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

완주군이 직영하는 용꿈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9㎡ 규모로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됐다.

용꿈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들을 위한 독서공간과

정보검색코너, 동아리방 등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기 완주부군수는 “용진을 승격 1주년이 되는 10월에 작은도서관 개관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서관 이름처럼 지역주민들이 큰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용꿈 작은도서관 개관과 함께 5개의 공공도서관과 10개의 작은도서관, 4개의 학교마을도서관이 조성,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의 지식, 정보, 교육문화 선진서비스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별블로그

무주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무주군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6일과 7일 반디랜드 내 반달빛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깨끗한 무주 부지되는 군민’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직자로서의 애환과 사명감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새내기 공무원들은 6일 무주군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양교육과 함께 친절교육을 받았다. 또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으며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등 화합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7일에는 골드 프로젝트와 복무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정부 3.0에 기반을 둔 소통과 공감, 협업강화 훈련을 받았으며 무주군 관공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등도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군청에서 임용장을 받았다.

임용식에는 부모님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 낭독과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배수관 빠진

송아지 구조해 농가에 인계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 119구조대는 7일 오전 천천면 남양리 금강 하천 배수관에 빠진 송아지 1마리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농가에 인계하였다.

농민 강모씨는 축사에서 기르던 송아지 1마리가 사라져 찾아 헤매던중 금강 하천으로 통하는 지름 1미터 배수관에 송아지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은 흥분한 송아지가 불안한 강물로 인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송아지를 안정시킨 후 퇴로를 차단하고 로프를 이용, 안전하게 구조하여 농민에게 인계하였다.

추성업 119구조대장은 “우리를 탈출한 가족은 낯선 환경에 흥분하여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성료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지회장 고명수)는 지난 7일 진안문화체육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김현철 도의원, 군의원,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명수 지회장은 “새마을가족 모두가 근면·자조·협동정신과 변화·도전·창조정신으로 시대적, 국가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체성을 확립한 제2마을운동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 실천해 진안군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마을정신을 계승해 더욱더 단합된 모습으로 더불어 잘사는 진안을 위해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전해산 장군 추모제례 봉행

장수군은 호남의병장 전해산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106주기 전해산 장군 추모제례’를 9일 최용득 군수, 기관단체장, 유도회 읍·면 지회장 및 유도회원, 유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번안면 전해산 기념관에서 거행했다.

이날 번안면 유도회(회장 장병완) 주관으로 마련된 추모제례는 일제강점기 때 남원, 장수, 광주, 장성, 영광 등 전라도 일대에서 의병대를 이끌며 왜군과 맞서 싸운 전해산 장군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초관관에 최용득 군수, 아현관에 군의회 유기홍 의장과 종관관에 권오성 유도회 부회장 순으로 제례가 진행됐다.

/장수=고판호 기자